

‘코로나 의병운동’ 그대가 남구의 영웅입니다

감만동 세자녀 저금통 깨 어르신들에 마스크 기부

감만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3명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뜯어 ‘어르신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라는 손편지와 함께 10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 10만원은 아이들의 뜻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해 관내 어르신 10명에게 배부했다.

“나보다 급한 대구에…” 기초수급자 50만원 보내

대연4동 주민 이 모씨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대구를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기부자는 심한 시각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로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를 모아 작은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며 익명으로 기부의 뜻을 전해왔다. 성금 50만원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었다.

❤️코로나 속에 핀 온정

○…감만2동은 감만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영범)와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과 협력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지된 요쿠르트 배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39명의 가정을 방문해 요쿠르트와 떡을 문양에 전달하고 전화로 안부확인을 했다.



○…남구동행푸드마켓은 3월 5일 임시휴점에 따른 이용자 700여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을 포장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했다.

○…(사)오륙도Hub포럼(회장 옥영석, 이재인)은 3월 9일 남구에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중증장애인 60세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NH농협은행 대연동지점(지점장 박혜영)은 3월 12일, 남구에 살균소독제 2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대한스포츠포총연합회(회장 현성주)는 3월 16일 남구에 손살균제 3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용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선)은 3월 10일 남구에 KF94 마스크 1,000매, 손소독제 400개, 라면 등 이웃돕기성품 8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3월 20일 경주이씨 부산광역시청·장년회(회장 이종관)에서 코로나19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햄버거와 음료 120세트를 전달해 격려했다.

○…부산고려병원(이사장 김철)은 3월 19일 직원들이 모은 성금 350만 원을 남구에 전달했다.

○…대연6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혜, 황선자)는 취사와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어르신 및 장애인 15세대에 한 달에 두 번 “안부도시락”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부



남구청 직원 방역단 100명이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전통신장과 주택가에서 소독 방역 활동을 벌였다.

를 살피고 있다.

○…문현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3월 10일 관내 취약계층에 휴대용 손소독제 1,000개(200만원)를 전달했다.

○…우암동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어르신 70세대에 손소독제 1개와 마스크 5매씩을 전달하고, 감염예방 행동수칙과 예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대연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양재흠패션교실’, 수강생 11명은 자비로 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틈틈이 만든 마스크 130장을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성자)는 마스크 350매를 자체 제작, 용호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를 통해 관내 홀로 어르신 150여 명에게 전달했다.

○…영도소 소재 덕이네 돼지국밥에서는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돼지국밥 400인분을 준비해 경로식당 운영 4개소(지계골, 감만, 용호, 남구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한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이겨냈던 때가 떠올라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싶다며 대연6동에 직접 만든 면 마스크 40장과 성금 10만원을 기부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용호1동 현장민원실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기부했다.

○…조웅래 남구체육회 전 이사는 3월 27일 KF94마스크 500개(150만원 상당)를 남구에 전달했다.

○…문현4동 화명교회 노인회는 3월 27일 문현4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산성교회(담임목사 박문찬)는 3월 27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남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현2동 별별마켓(대표 강효람)은 3월 25일 관내 취약계층에 마스크 1000장(1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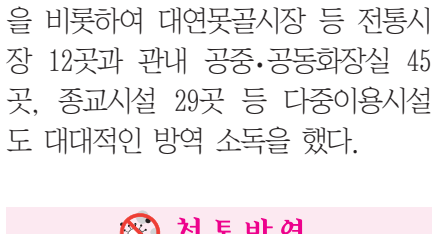
○…용호3동 소재 의류기업 이소우섬유(대표 김금조)는 3월 25일 면 마스크 420개를 제작해 용호3동에 기탁했다.

○…문현동 삼성태권도학원 원생들은 남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인의 사진이 담긴 응원 의 메시지와 격려품(컵라면 2박스, 박카스 11박스)을 보건소에 전달해 왔다.

남구 직원방역단 출동 주민들 불안감도 소독

남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오른 지난 3월 초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펼쳐 주민 불안감을 해소했다.

3월 4일 구청 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방역단을 긴급 편성해 대연 1동과 3동의 이면도로 구석구석 방역소독 작업을 했다. 위생소독 외에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방역’ 효과도 매우 컸다. 직원방역단에 앞서 남구청장을 포함해 동장 등 주요 간부들로 이뤄진 간부방역단도 각 동 방역단과 함께 2월 말부터 매일 관내를 돌며 이면도로 등의 방역작업도 가져 호흡을 얻었다. 이들 방역단은 용호골목시장을 비롯하여 대연못골시장 등 전통시장 12곳과 관내 공중·공동화장실 45곳, 종교시설 29곳 등 다중이용시설도 대대적인 방역 소독을 했다.



철통방역



○…대연1동 주민자율방역단, 각급단체, 자원봉사캠프, 예비군, 직원 등은 3월5일 민관합동방역을 실시했다.

○…대연3동은 지난 2월 27일 민·관 합동 동시방역을 실시했다.

○…대연5동 통장협의회(회장 조영복)는 3월 12일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못골시장과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대연5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원규)는 못골시장과 주변지역에 대해 평일과 주말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연5동 못골자율방범대(대장 김유동)는 주민들의 코로나19 걱정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 3월 5일 못골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대연6동은 3월 13일 ‘민·관 합동 동시방역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방역에는 새마을자율방역단(회장 김상철)과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화자), 남구의회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해 2개소로 나누어 버스정류장, 도로 뒤편, 지하철 출입구 등을 집중소독했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산남구본부(본부장 박두춘)에서는 3월 1일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어린이 놀이터와 상가,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동네체육시설 등 용호1동 전역을 돌며 소독제로 주민 접촉이

잦은 부분을 꼼꼼히 소독했다.



○…용호2동은 3월 12일 새마을자율방역단 등 각급단체가 참여해 민·관 합동 동시방역을 실시했다.

○…부산 남부응급센터 의용소방대(대장 천병철) 남내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은 3월 21일 용호2동 이면도로를 구석구석 누비며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용호3동 새마을 3개 단체는 3월 5일 민관합동 방역을 실시해 관내 이면도로는 물론 환경공단 체육공원과 설자리, 동생발 일대까지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용호4동은 3월 6일 민관합동방역을 실시해 버스정류장, 상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 등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감만동 새마을단체는 2월과 3월에 걸쳐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실시해 다중이용시설 내 의자, 손잡이 등 주민들의 신체에 자주 닿는 부분에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만2동 주민자율방역단은 3월 4일 석포로변 상점 및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문현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송두섭)는 3월 8일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등 문현1동 전역을 돌며 방역활동을 했다.

○…문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연희)와 문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혜선)는 3월 19일 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정류장과 산책로 내 체육시설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문현3동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귀분)와 새마을문고회(회장 정점자)가 매주 화요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성영태)가 매주 금요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행정복지센터는 부산시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기간동안(3월12일~27일) 관내 18개소 사업장(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을 방문해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일대일 맞춤형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문현4동은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과 함께 다중집합장소 방역을 실시해 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등을 집중방역했다.

○…대연4동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회 3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합동동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자와 어르신에겐 황사·방역 마스크 해로울 수도”

N95·KF94 마스크 무조건적 사용은 호흡곤란 등 우려



박성후
부산고려병원 내과 과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 가져다 온 풍경은 한산한 거리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 텅 빈 식당들이다. 이러한 풍경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예견하기 힘들지만 우선 한국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잦아드는 느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고려하면 또 언제 어디서 대규모 감염이 발견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사람들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곧 이 악몽도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지금 이러한 여건에서 가장 아쉬운 건 마스크다.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현재 약국에서 5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요령껏 마스크를 구하지만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잘 구하지 못해 같은 마스크를 수 일 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던 중 남구청에서 주민 한 사람 당 마스크 3개를 무상 공급해 주었다. 구청이 제공한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였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었다. 현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노인들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기에 무슨 일인가 생각했다. 일선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마스크를 무려 100만장이나 구해 전 구민에게 지급한다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알고 보니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나눠준 것이다. 쉽지 않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 시국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 취약 계층임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음을 안다. 이들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돌아 다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수고스러움의 몇 배에 달하리라 생각이 든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이성으로 어떤 마스크가 효과적인지를 알 수 없으나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로 비추어 봤을 때 N95를 쓰기 어렵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 마스크가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대체제로 사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폐활량이 작은 어르신의 경우 N95, KF94의 무조건적 사용은 오히려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염병은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 우리 이웃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도하다.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함께 지속하다 보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주간 코로나19 방역지원을 마치고 복귀하기 전에 가진 기념촬영.

“대구 돕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남구 ‘코로나 어벤저스’ 복귀

남구보건소 의료인력 5명

대구 보건소 2주간 업무 지원

대구로 코로나19 의료지원을 나선 남구보건소 의료인력이 무사히 돌아왔다.

남구보건소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대구 보건소에 처음으로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은주 의약품리팀장과 이주정, 성예진, 이슬, 유준경 주무관 등 5명은 2주간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업무를 도왔다. 의료기술직, 간호사, 보건직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의료지원 파견은 대구 북구보건소측이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을 겸

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허목 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수차례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남구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파견 결정을 내렸다. 파견팀은 모두 자원자로 구성되었으며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내부 지원자가 많았다. 남구는 인력지원 외에 코로나19 의심자의 검체 채취를 위한 음압채담부스 1동, 자가격리자 지원용 비상식량 100세트, 의료진의 방호복 140벌, 마스크 480장도 함께 지원했다.

파견팀을 인솔한 이은주 의약품리팀장은 “우리보다 도움이 손길이 더 절박한 대구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오히려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5명은 코로나 양성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